



국내 첫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2천례 달성

3차원영상, 新치료 혼합법으로 난치성 만성심방세동 85% 완치 시술로 사망한 환자 無



심혈관센터(센터장 김영훈)가 지난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2,000례를 달성했다. 지난 1998년 심방세동 환자 치료를 위한 전극도자절제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2009년 12월 1천례를 달성했으며, 이후 3년 여만에 2천례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2천례 시술 중 이로 인한 사망환자는 단 한명도 없어 그 의미를 더했다.

전극도자절제술이란 심방세동에서 심장의 불규칙한 전기흐름을 보내는 부분을 절제하거나 괴사시켜, 심장이 다시 규칙적인 운동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절·치료하는 치료법이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수축이 없어지며 부르르 떨리는 것을 현상으로 가정 흔한 부정맥으로 흔히 뇌졸중 등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부전 등 심장병을 악화시키는 질환이다.

1998년 고대병원 심혈관센터 김영훈 교수가 전극도자절제술을 도입하기 전까지만해도 심방세동은 약물로 치료했으며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여겨졌다. 도입 초기에는 오히려 전극도자절제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심방세동의 치료에 있어서 전극도자절제술이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차원 영상구현, 심내막·심외막 혼합요법, 알코올 주입법 등의 혼합법으로 만성 심방세동의 85%를 완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장 내 좌심방이 부분에 우산모양의 장치를 씌워 혈전 생성을 막음으로써 뇌졸중 등의 위험을 줄이는 시술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이나 타병원에서도 실현하기 어려운 특출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심혈관센터 김영훈 교수는 “전극도자절제술은 길게는 17시간까지 걸리는 힘든 시술로, 초창기에는 밤을 새서 시술해야하는 일이 당연시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이번 2천례는 부정맥 모든 팀원들은 물론 흉부외과, 마취과 등 신속한 협진을 가능케 했던 의료진들이 한 몸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 만례, 오만례 시술을 통해 심방세동 환자들이 약을 끊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번째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했던 김봉환씨는 “가슴벌렁거리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내가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다”며 “김영훈 교수는 생명의 은인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진중민씨 역시 “부정맥을 갖고 산지 20년이 됐다. 교수님의 정성된 진료덕분에 살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고대병원 심혈관센터는 지난 5월 20일(월) ‘전극도자절제술 2,000례 달성 기념식’을 갖고, 관계자들을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혈관센터 이대인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시술 후기(김봉환, 진중민) ▲고대병원 부정맥센터의 발자취(심혈관센터 박상원 교수) ▲축하메시지 동영상 ▲김영훈 교수의 감사말씀 ▲축하 세레모니 등으로 진행됐으며,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이학발천기금기부

13.04.23	김혜남(77학번동기회)	₩ 3,000,000
13.04.23	김영훈(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4	윤종태	₩ 1,000,000
13.03.20	오미미	₩ 3,000,000
13.03.27	재단법인 석명과학재단	₩ 3,000,000
13.04.03	권택근(의대 46회 졸업생)	₩ 500,000,000
13.04.05	의전원 10학번 학부모회	₩ 7,500,000
13.04.12	차인호	₩ 20,000,000
13.04.29	최진옥(77학번동기회)	₩ 2,000,000
13.05.03	송해준(77학번동기회)	₩ 2,000,000

13.05.20	김용훈(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5.08	김연희	₩ 5,000,000
13.05.22	김용신	₩ 10,000,000
13.05.20	전지민	₩ 10,000,000
13.05.16	이지영,신현영	₩ 10,000,000
13.05.23	의과대학 38회 동기회	₩ 5,000,000
13.02.01	임재신	₩ 1,000,000
13.02.28	2009년 신임교원 장학회	₩ 2,000,000
13.03.21	격암문화재단	₩ 3,000,000
13.06.20	곽정훈	₩ 360,000

* 기간 : 2013년 04월 23일~2013년 06월 20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암! 고려대학교병원은 이렇게 치료한다! >

말기 대장암 치료 및 생존율 국내 최고(最高) - 대장암센터



▲ 국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대장암'

최근 국내에서 높은 증가율이 보이는 암은 단연 '대장암'이다. 국가암정보센터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폐암, 간암을 제치고 갑상선암, 위암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고려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동물성지방이나 단백질 등을 과다섭취하다 보니 대장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 굳이 들자면 혈변을 보거나 복통, 설사, 변비 등을 반복하는 등 배변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대장암의 자각증세 중 하나는 '빈혈'인데 이는 대장에 발생한 암 중심에 궤양이 생겨 만성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자각증상이 나타났다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장내시경검사로 확인...조기발견 시 거의 100% 완치

대장암은 초기자각증상이 거의 없지만 조기발견하면 100% 가까이 완치된다. 대표적인 대장암검사로는 잠혈검사와 수치검사, 대장에 조영제와 공기를 넣은 후 엑스레이를 이용해 대장의 모습을 확인하는 대장조영술검사가 있다. 대장내시경검사는 대장암검사에 있어 가장 유용하고 필수적인 검사로 내시경을 통해 직접 병소를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을 조기진단할 수 있다.

▲ 항문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화

대장·직장암 수술에 있어 환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이 항문보존 여부다. 항문을 제거할 경우 평생 인공장루를 통해 배설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바깥항문입구 5cm 이내에 생기는 하부직장암의 경우 항문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대병원에서는 암이 3cm 이내에 생길 경우에만 항문을 제거하며 최근에는 이조차도도 보존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는 "항문보존이 어려워 암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대장암 수술에 있어 항문보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대한 항문을 보존하면서 암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수술 후 재발방지 위한 정기검사 필수

보통 고령자는 만성질환이나 면역력 약화, 합병증 등을 이유로 젊은 사람보다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가 수술 받은 고령자 303명을 대상으로 약 1년6개월 간 조사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수술 후 3년 동안은 3~4개월에 한번 병원에서 흉부X선검사, 간 CT촬영, 초음파검사, 종양표지자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야채를 많이 먹는 등 섬유소를 섭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섬유소는 그 자체로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며 변비를 예방함으로써 대장 점막이 발암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준다. 반대로 지방질이 많은 육류와 설탕 등 순수한 당류섭취는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대장암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40세 이상의 경우 매년 대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5~10년마다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화기내과 진운태 교수는 "대장암은 조기검진의 효과가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해 이미 입증돼 있다"며 "대장암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검진으로 암의 전단계인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경향신문 조창연 기자

고려대학교병원, 초진 암환자대상 빠른 <hi-pass system> 실시!

빠른 癌(암) 치료

병원에 처음 오시는 암환자는 무조건 'hi-pass~'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hi-pass 시스템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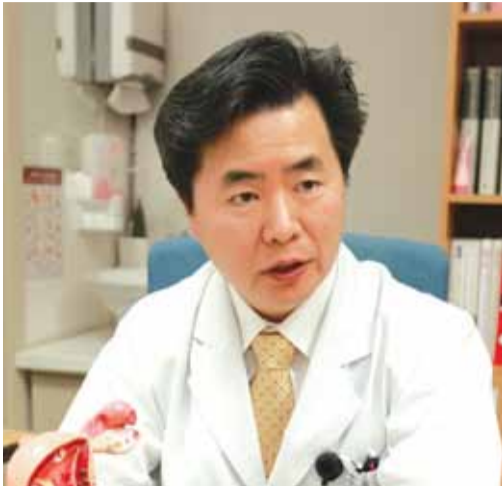
초진 암환자를 위해

당일 진료, 당일검사, 1주내 진단, 진단 후 1주내 입원,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고대병원만의 암환자 맞춤 진료 프로세스입니다.

*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서 상기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 7년 새 2.4배 급증,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5월 26일 YTN 방송]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결함을 가진 아기가 7년 새 2.4배 증가 했는데 왜 이렇게 환자가 증가하는 걸까요? 고려대학교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선천성 기형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또한 어느 정도 심해야 기형이라 말하나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심장기상, 안면기형 등 다양한,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해부학적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치료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선천성 주요 기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임신부들의 나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당뇨병도 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 이상의 확률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는 의료문화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상이 있으면 유산을 선택하는 산모들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용기있는 부부들이 분만 후에 치료를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과 태아의 결함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의 빈도도 증가합니다. 또한 불임 시술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태임신(쌍둥이)도 증가하고, 염색체 이상도 나이가 들수록 확률이 증가합니다. 고령일수록 선천성기형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선천 기형 위험을 높이는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기한테 위험한 것, 술이나 담배, 화학물질, 방사선 등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드시는 적절한 약물은 오히려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기가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치료 못할 선천성기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치료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발전된 의료기술을 이해하고 아기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달라지고, 오히려 적극적인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 마지막으로, 임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선천성 기형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임신 전에 엽산만 충분히 복용해도, 전체 선천성기형의 50% 이상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젊은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다이어트가 보기에는 좋은데 지나친 영양결핍 상태를 초래해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임신 전에 제대로 조절만 하면 아기한테 영향 없이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신 전에 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엽산정책,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엽산강화 정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자기형이 증가되는 추세라면 국가적 차원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임신부 개인의 마음과 신체적 인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대상포진 환자 최근 4년 새 40% 증가, 피부과 계영철 교수

[건강정보]



최근 대상포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통증의 정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환자의 63%에서 심한 통증을 보였으며 전체 중 약 6.7%는 상상 가능한 최악의 통증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결과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통증을 견디다 못해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 받아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은 소아기에 수두에 걸려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노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인체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며 옹기종기 군집을 이뤄 전체적으로 띠모양으로 나타나면서 그 부위에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을 보이는 심각한 피부질환이다.

고려대병원 피부과 계영철 교수(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가 2012년 1년 동안 전국 20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대상포진 환자 19,884명을 조사한 결과, 56.7%(11,270명)의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약 7%(1,368명)의 환자는 통증과 합병증으로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병원 피부과에 병상이 적어 피부과 환자가 입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해야 할 만큼 통증에 시달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려대학교병원 피부과 계영철 교수(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는 “대상포진은 피부과 입원 환자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발병 빈도가 상당히 높은 질환”이라며 “치명적 통증과 신경통 등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초기에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 대부분이 초기 증상 발생 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했다.

대상포진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416,216명이었던 대상포진 환자는 2012년 577,157명으로 4년 새 약 40% 정도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평균 9%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약 18%의 환자에서 당뇨, 압, 항암치료 등과 같은 면역 저하 상태가 나타났으며 향후 고령화 등의 이유로 면역저하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환자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경제적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대상포진 자가진단법

1.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2. 작은 물집들이 몸의 한 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3.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 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4. 어렸을 때 수두를 경험하거나, 과거 대상포진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5. 평소 허약하거나 노인인 경우, 혹은 암 등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경우

■ 예방법

1. 평소 손을 깨끗이 씻어 세균이 내 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2.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다.

3mm 구멍으로 수술하는 소아 탈장 복강경 수술, 소아외과 부윤정 교수 [기획특집]

탈장 반대편 구멍 확인해 미리 수술, 흉터 없고 통증 적어 재발율 1% 미만으로 개복수술과 동일



소아 서혜부(사타구니) 탈장 복강경 수술이 그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 소아외과 부윤정 교수팀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혜부 탈장 복강경 수술을 실시한 소아환자 207명을 수술 후 2년간 추적 관찰하여 분석해보니, 모든 경우에서 재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명은 수술 후 가벼운 혈종 증상을 보였으나 재수술 없이 당일 퇴원하였으며 일주일 후 혈종은 저절로 소실되었다.

개복 수술보다 낮다.

▲ 복강경수술을 통해 대측탈장의 위험 예방

무엇보다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탈장이 나타난 반대편의 복막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막는 수술을 함으로서 이 구멍을 통한 탈장(이시성 대측 탈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복수술은 탈장이 일어난 부위만 절개해 보기 때문에 반대편 복막의 구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에 분석한 207명 가운데 39.2%가 반대편 복막에 구멍이 발견돼 탈장 부위와 동시에 수술했으며 수술 후 추적 관찰 중 반대편에 탈장이 발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절개 수술 후 소아 서혜부 탈장 환자가 반대편 복막에 다시 탈장이 발생할 확률이 7~10%인 것을 감안하면, 복강경 수술은 대측 탈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인 것이다.

▲ 소아탈장 新복강경 수술법으로 재발율 1% 미만

그 동안 해외에서 주로 시행되어오던 소아 탈장 복강경 수술은 흉터가 거의 없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재발율이 개복 수술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부윤정 교수팀이 외국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개복 수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한 결과 개복수술과 비슷한 1% 미만의 재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복강경 수술은 3mm의 매우 가는 복강경 기기를 구멍을 통해 집어넣어 수술하는 것으로, 서혜부를 절개해 실시하는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흉터가 거의 없고, 통증도 매우 적다.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할 만큼 회복도 빠르다.

또한, 수술 시야가 실제보다 확대 되어 보이고, 배 속에서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 합병증 발생률도

고대병원 소아외과 부윤정 교수는 “소아 서혜부 탈장은 전체의 약 5%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아의 경우 작은 흉터라도 성장하면서 흉터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복강경 수술을 통해 흉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미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또한 복강경 수술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술 중 반대측 서혜부를 관찰해 대측 탈장을 발생까지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환아가 추후 반대쪽에 탈장이 발생하여 다시 입원하여 마취 및 수술을 하게되는 고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이번 논문을 통해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아 탈장 환자들이 고통을 줄이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KBS알약튼튼'과 함께하는 5분건강 3.무릎강화운동

[5분 건강]



스포츠의학센터 이진혁 운동처방사가 'KBS 알약튼튼'과 함께 4월부터 5회에 걸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3. 무릎강화운동

대상 : 무릎의 과사용이나 무릎에서 뚝뚝 소리와 같이 염발음이 있거나 무릎에 시큰하는 통증이 있는 사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통증)

운동방법 : ① 다리를 쭉 편다.

② 무릎 아래에 베개나 수건을 놓아 준다.

③ 발목을 몸 쪽으로 당기면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

④ 2~3초 유지한 후 다리를 내린다.

주의사항:

① 허리를 뒤로 젖혀서 다리를 뻗는 동작은 좋지 못합니다.(허리를 바로 세우고 실시)

② 다리를 뻗어 올려줄 때 무릎 밑의 수건이나 베개에서 다리가 떨어지면 안됩니다.(20~30도)

③ 과하고 순간적인 힘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을 사랑한 '파김치' 박관태 이식혈관외과 교수

[5월 30일 연합뉴스 게재]

단짝 친구의 유언과 약속으로 몽골서 2천500여건 수술



"몽골에 가면 저는 '파김치'가 됩니다. 몽골어로 의사 파김치(Emchi)라서 환자들이 저를 부르면 꼭 '파김치(박임치)'로 들립니다."

30일 자타가 공인하는 '몽골통' 박관태(43)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부소장은 이렇게 자신

을 소개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4년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 연세친선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한 박씨는 2천500여건의 수술을 하며 열심히 몽골인을 돌봤다.

박씨는 2005년 귀국 후 지금까지도 매년 수차례씩 몽골을 찾아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덕분에 몽골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 가서 몽골말 잘하는 '박임치'를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다고 한다.

박씨가 몽골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것은 단짝 친구와 꿈을 나누면서부터다. 의대 입학 동기인 심재학 씨와 "의사가 되면 함께 몽골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자"고 약속하며 꿈을 키웠다. 그러나 심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999년 11월 악성림프종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재학이가 '내 뭇까지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면서 "친구의 죽음과 유언이 큰 부담감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곧 몽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2년 12월에 몽골에서 최초로 복강경 수술(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하는 수술)을 집도했다.


"조그만 구멍을 뚫고 복강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모습을 보고 몽골 의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열심히 신나게 하다 보니 유명해졌고 나중엔 대기환자가 100명이나 줄을 섰습니다."

몽골 의사들에게도 복강경 수술을 전수했다. 몽골 국립의대 외과 주임교수와 독립병원 외과 의사들도 그의 제자가 됐다. 박씨는 2005년부터 이 같은 생각으로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8개 나라를 돌며 복강경 수술을 보급했다. 몽골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그는 '봉사 중독자'가 됐다.

2005년부터 하루도 개인의 휴식을 위해 휴가를 쓴 적이 없다는 그의 달력에는 다음달 현충일 연휴와 7월 휴가는 몽골, 8월 광복절 연휴는 미얀마, 9월 추석연휴는 카자흐스탄 등 의료봉사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난번 아이티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 '한국전쟁 때 너희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지금 이만큼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도울 차례니 힘내고 일어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니 그곳 사람들이 감동해서 목놓아 울더군요."

오는 8월 그는 가족과 함께 몽골로 들어간다. 몽골 정부가 민간병원 설립 사업을 진행하며 고려대 의료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책임자로 뽑힌 것.

그는 "이번에 몽골에 가면 최소한 2년에서 4년은 있게 될 것 같다"며 "몽골에 장기이식 의술을 전수하고 좋은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용 검진 차량과 치과 차량은 있는데 이식수술이 가능한 수술 차량은 없다"면서 "앞으로 '수술 차량'을 만들어 중앙아시아를 누비며 평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꿈"이라고 덧붙였다.  글 |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수족구병 방심하면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다,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 [주의! 이 질병]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395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최근수족구병의사 환자 발생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여름철 개인위생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의 도움말로 요즘 더위에 활개를 치는 수족구병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본다.

▲ 수족구병이란


수족구병은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모여서 장시간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급속히 퍼져 해마다 사회문제가 되곤 하는 병이다. 주로 엔테로 바이러스와 콕사키 바이러스 감염으로 걸리며 흔히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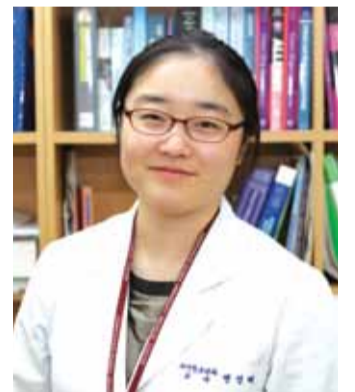
▲ 수족구병의 증상 및 주의사항

주요 증상은 수포(물집)다. 3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손바닥, 손가락의 옆면, 발뾰족이나 엄지발가락 그리고 입안에까지 물집이 잡힌다. 크기는 쌀 한 톨이나 팔알만하다. 수족구병은 다행히 발병 시 대부분 7~10일 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뇌염, 심근염 등 합병증을 일으킬 경우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아이들의 손발 등에 이상한 수포 및 발진이 보일 경우 일단 수족구병을 의심,

서둘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마다 일부 아이들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무균성 뇌수막염이나 뇌염, 또는 심근염, 심막염을 합병해 생명이 위협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족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의 종류가 7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출 후 양치질 및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가 최선·최고의 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

-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엄마와 아기가 함께 외출 전·후, 배변 후, 식사 전·후
 -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기기저귀 교체 전·후 철저히 손 씻기
-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의 청결(소독) 지켜주기
-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를 받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세탁하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128채널 CT 1기 추가 도입, 적은 방사선량으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고려대학교병원이 병원 128채널CT 1기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로써 고대병원에는 128채널CT 3기를 보유하게 되며, 환자들에게 기존장비에 비해 더욱 적은 방사선량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128채널CT는 기존장비에 비해 뛰어난 해상도(최대 0.24mm)와 초고속(1회전 속도 0.3초) 촬영 기능을 갖춘 장비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I-dose, O-MAR, I-Patient) 방사선 피폭량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64채널로 장비로는 판독이 어려웠던 금속이식물(metal implants)이 삽입된 부위까지 판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기를 이용하면 시간해상도가 중요한 심장 촬영시 가장 빠른 시간해상도를 보여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관상동맥, 대동맥 및 사지혈관, 심장기형, 뇌혈관 이상, 대장 및 위장의 가상내시경, 뇌혈류량 검사 등 혈관이나 장기의 모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대병원-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원장 서강문)이 2013년 6월 4일(화) 오후 2시 고려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회의실에서 연구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임상의학연구" 관련 분야의 상호 성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두 기관의 지속적인 임상 연구 정보 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성 △연구인력 교류 △임상 의학 연구 개발에 대한 상호 협조 및 지원 △연구시설의 상호이용 △연구장비 및 의료기기 기증 등을 통해 의학 수준향상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체결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보직자와 본 기관 보직자들과 함께 실험동물연구센터 및 실험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은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협력병원 방문을 통해 각 병원장들과 만남의 시간 가져



녹색병원 양길승 원장, 보직자들과 박승하 원장이 협력병원 방문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이 3일에 걸쳐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외 30여개의 협력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층 더 강화된 협력병원과의 상호 상생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박승하 병원장은 직접 협력병원을 찾으며 각 병원장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진료협력방안에 관한 애로사항들을 들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고려대학교병원 박승하 병원장은 "이렇게 현장에서 각 병원장님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 편리한 진료의뢰시스템의 개선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진료협력체계의 더 나은 구축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고대병원은 현재 1093개의 협력병의원(협력병원 212곳, 협력의원 881곳)과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진료과별 간담회 개최와 협력병원 직원 대상 친절교육 및 업무교육(보험청구 등) 실시, 진료협력센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스피스회, 꽃으로 암 환자 치유 돕는 원예치료활동 실시



호스피스회(회장 신상원)는 지난 5월 14일(화) 5층 정원에서 '암환자 및 보호자 원예치료활동' 을 실시했다. 이번 원예치료활동은 원예활동을 통해 암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사회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원예치료활동은 전선한 원예치료사가 '풍란제힘' 을 주제로 실시했으며, ▲풍란의 구조설명 ▲우리 인체의 고통의 신비와 연계 ▲풍란 심기 ▲감상과 소감 나누기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번 원예치료활동에 참여한 한 환자는 "풍란 분갈이 하는 동안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내가 했다는 보람도 느꼈으며 풍란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 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정보서비스 설명회 개최



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이 5월 28일(화)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종합정보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적정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전 예방적 기관관리' 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도움을 주기위해 개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세화 위원(고대 명예교수), 김은숙 차장, 윤혜숙 과장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이기형 진료부원장과 유세화 위원의 인사말에 이어 김은숙 차장의 강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개 ▲청구 · 심사 현황 ▲ 평가 현황 ▲ 사후관리 현황 ▲ 심사사례 ▲기타 안내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응급의료센터 진료협력의뢰 병·의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응급의료센터(센터장 홍윤식, 과장 이성우)와 진료협력센터가 지난 5월 9일 (목)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진료협력의뢰 병·의원장 초청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윤식 응급의료센터장, 이성우 응급의학과장, 김수진 교수, 좌민홍 교수, 박종수 교수, 김미숙 수간호사, 이은정 코디네이터, 이선정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고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과 진료협력센터 3명, 협력병의원 의사 및 관계자 9명이 참석해 유기적인 진료 협력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지역사회 심정지 예방 및 생존율 향상 사업을 주제로 최신지견을 나눔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효율적인 협력관계 및 진료의뢰 편의성의 증진을 위한 방안들 역시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

이비인후과 진료협력의뢰 병·의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비인후과(과장 정광운)와 진료협력센터가 지난 5월 7일(화) 홀리데이인 서울성북호텔에서 '진료협력의뢰 병·의원장 초청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광운 이비인후과장, 이상학 교수, 임기정 교수, 장지원 교수, 전영준 교수, 박민우 교수, 최환 교수, 김소연 언어치료사를 비롯한 고대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과 진료협력센터 3명, 협력병의원 의사 15명이 참석해 유기적인 진료 협력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의 최신 약물 요법과 메니에르병의 실전적 약물사용, 그리고 개원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음성치료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있을 효율적인 협력관계 및 진료의뢰 편의성의 증진을 위한 방안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2013 당뇨공개강좌' 개최



고려대병원 당뇨센터(센터장 최동섭)는 5월 24일 오후 2시 8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 당뇨 공개강좌' 를 개최했다.

이날 최동섭 당뇨센터장, 김신곤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과 당뇨환자 및 가족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개강좌는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를 주제로 ▲무료 혈당 측정 및 혈압측정 ▲인사말 (최동섭 교수) ▲행복 음악회 (플라워싱어즈) ▲강좌 '습관 바꾸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김신곤 교수) ▲강좌 '식습관 바꾸기, 혈당 관리의 시작입니다' (허주미 영양사) ▲귀여운 천사들 공연 (김지연 강사) ▲성공적인 당뇨병관리 사례발표 ▲질의응답 및 간식제공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료진들이 강좌 시작에 앞서 오전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행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무료로 측정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강좌가 끝난 후에는 공연을 하는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

아늑한 카페같은 전공의 휴게실 리모델링 오픈



고려대학교병원이 최근 전공의 휴게실을 리모델링 하며, 전공의들의 편의 제공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전공의 휴게실 리모델링 오픈은 전공의들이 휴식뿐 아니라 업무 및 문화교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안해서 마련됐다. 발받침이 가능한 쇼파, TV, 커피포트, 오디오,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은 업무에 지친 심신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공간을 확장해 전공의들이 보다 넓은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 대표 노경한 의사(정형외과 4년차)는 "이렇게 인턴 및 전공의를 위한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신 병원 측에 감사드립니다"며, "업무에 힘든 인턴 및 전공의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하 원장은 "전공의 휴게실 리모델링은 병원 교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작"이라 강조하며 "앞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뿐 아니라 내부 직원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목표관리는 우리가 최고!



고려대병원이 지난 5월 22일과 28일 본부회의실에서 2012년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은 2012년 목표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과 부서를 격려하기 마련됐다. 진료부서와 일반부서를 나눠 선정한 이번 평가는, 진료부서에 직접진료부와 간접진료부를, 일반부서에 경영관리부와 진료지원부, 그리고 간호부 3개의 부서를 선정했다. 직접진료부에는 ▲신경외과 ▲성형외과가 선정됐고, 간접진료부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선정됐다. 또한 경영관리부에는 ▲관리팀, 진료지원부에는 ▲인공신장실, 간호부에는 ▲교육연구위원회 ▲업무전산개발위원회가 선정됐다. 선정된 목표관리우수 부서장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

리부와 진료지원부, 그리고 간호부 3개의 부서를 선정했다. 직접진료부에는 ▲신경외과 ▲성형외과가 선정됐고, 간접진료부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선정됐다. 또한 경영관리부에는 ▲관리팀, 진료지원부에는 ▲인공신장실, 간호부에는 ▲교육연구위원회 ▲업무전산개발위원회가 선정됐다. 선정된 목표관리우수 부서장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

이달의 친절직원을 소개합니다



산부인과
류기진 전공의

66병동
이상인 간호사

83병동
강추완 간호사

소아청소년과
설희숙 간호조무사

친절직원은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병원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을 칭찬엽서에 추천해주세요. 칭찬엽서는 각층병동과 외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어겠습니다.

